도서관 정보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구입자료 중복율에 대한 조사 연구*

- 경기도 소재 3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f Acquisition Material Duplication Rate Among Three Academic Libraries for Developing a Library Cooperation System

곽 철 완(Chul-Wan Kwak)**

목 차

1. 서 론
2.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협동수서
3. 연구방법
   3. 1 조사대상 선정
   3. 2 종속변인
   3. 3 데이터수집
4. 데이터분석
   4. 1 연도별 구입자료 수
   4. 2 자료구입 중복율 비교
5. 결론 및 제언

초 록

대학도서관간 정보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대학도서관들 사이에 연간 구입되는 자료들의 중복 비율을 조사하였다. 경기도 소재 3개 대학도서관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2000년도 2001년도 구입자료 리스트를 통해 각각 2개 대학간 동일한 자료 구입 비율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구입자료의 중복율은 서로 유사한 규모의 대학도서관은 2000년도에 불과 0.4%, 2001년도에 2.8%, 그리고 규모의 차이가 있는 대학도서관간에는 2000년도 1.33%와 1.11%, 2001년도엔 3.63%와 3.88%였다. 이는 교원수, 학부학생수, 전공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과 적게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도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 acquisition material duplication rate among three academic libraries for developing an academic library network. Three academic libraries located in Gyonggi-do, Korea were selected for data collection. The acquisition lists in both 2000 and 2001 were compared and analyzed between two libraries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duplication rate is 0.4% in 2000 and 2.8% in 2001 between medium size libraries, and 1.33%, 1.11% in 2000 and 3.63%, 3.88% in 2001 between a big size library and medium size libraries. These tell us that a big library can get benefit from a library network with medium size libraries.

키워드: 대학도서관, 자원공유, 구입자료 중복율, 정보네트워크, 협동수서
academic library network, resource sharing, cooperative acquisition, acquisition material duplication rate

---

* 본 연구는 강남대학교 2001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강남대학교 조교수(ckwak@kangnam.ac.kr)
논문접수일자 2002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11월 29일

1. 서 론

오늘날 도서관 주위를 감싸고 있는 사회 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동시에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제한된 예산과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가격의 상승과 전체적인 출판물 양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료의 증가 비율은 출판물 증가에 못 미치는 형편이다.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도서관 주위 환경과 더불어 그 변화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요구의 변화는 다양한 강좌의 개설로 이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수의 감소는 대학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도서관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이 미쳐, 개개의 대학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은 서로 협력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도서관 정보에 대한 개념이 소장에서 접근으로 변화되면서, 협동수서와 자료의 상호대차를 통한 자원공유는 도서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몇몇 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해 자관의 소장자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료를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사실 그러할까? 하나의 대학도서관이 타 대학도서관과 자원을 공유하려면 서로 다른 자료를 소장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유효과는 커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소장하는 자료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원 공유의 효과가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도서관들 간에 서로 동일한 자료를 소장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들 사이에서 자료를 구입할 때, 동일 자료가 어느 정도 구입되는지 조사하려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3개 대학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대학도서관에 적용시킬 수 없으며, 동시에 구입자료에 대한 비교를 수적으로만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주제별 구별이나 구입요구 집단별 구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2.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협동수서

타 도서관과 정보네트워크 구축은 도서관간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 하나다. 특히,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부분은 협동수서 및 공동보존을 통한 자원의 공유부분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01). 협동수서란 여러 도서관들이 각각 수집하는 자료의 주제나 유형을 사전에 결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자원공유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간의 자료의 중복구입을 피하고, 자료 구입의 집중화와 특

정 주제분야에 대한 자료의 분담 구입 등을 통하여 도서관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협동수서의 개념을 확대하여보면 사전에 자료 구입의 집중화와 분담과 같은 협력활동 없이 독자적으로 수서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자료를 수집한다면 공동 이용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협동수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자원의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도서관들 사이에 상호대차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ARL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과 1991년도를 비교하여 볼 때, ARL 소속의 도서관의 교수와 학생 이용자는 10-16%가 증가했지만, 단행본은 15%, 연속간행물은 2%나 감소했다. 하지만, 상호대차 건수는 47%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Pritchard 1992). 이 내용을 보면 미국의 연구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자원의 공유를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더욱 손쉽게 외부 도서관에 대한 자료 접근이 손쉬워지면서 외부 자료에 대한 정보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 장서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소장'의 개념에서 '접근'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도서관 장서를 이제 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한정하지 않고, 외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자관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타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도서관이 상호대차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자의 도서관이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도서관이 타 도서관에 자료를 대출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이익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규모의 도서관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자관의 자료만 대출해주고 타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빌리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장서가 많은 도서관에서 상대적으로 장서가 적은 도서관에 비해 상호대차 요구가 많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hapman(1998)은 자원공유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무상과 유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무상은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대차의 형식으로 자료를 서로 빌려주는 방식이며, 또 하나는 외부 이용자에게 무료로 자관의 자료를 빌려주는 방법이다. 반대로 유상은 자료를 이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협력도서관들의 공동체에 일정한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한가지 시도라 할 수 있다.

각각의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자원을 공유하여도 경제적인 손실이 없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 구입한 자료를 중복해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면 여기에 사용되었던 비용을 타 도서관 자료에 접근하는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각 도서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정보네트워크를 위한 자원공유 활동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협력체제

가 운영되고 있으나 협동수서에 관한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0). 8개의 협력체가 협동수서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은 외국학술잡지에 국한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활동으로 국한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 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협동수서를 통해 자원 공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 1 조사대상 선정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대학도서관 3곳은 경기도에 위치하며 서로 인접한 거리에 있다. 이들 대학도서관을 선정한 이유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크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 3개 대학도서관이 하나의 도서관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망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대학도서관간의 정보네트워크 소장된 실물자료가 서로 빠르게 교환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동시에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3개의 대학도서관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을 편의상 A대학, B대학, C대학이라 부르기로 한다.

A대학과 B대학은 교원의 수와 학부학생의 수는 서로 비슷하다. 하지만 C대학은 다른 두 개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의 수와 학생의 수를 가지고 있다. 개설하고 있는 전공에서 보면 A대학과 C대학은 서로 중복되는 전공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A대학과 B대학은 상이한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차이는 구입 자료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제시한 10가지 요인 중 하나가 이용자집단의 규모와 특성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교원수, 학부 및 대학원 학생수, 학과수 등(윤희윤 2001)으로 구분되므로 자료구입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3. 2 종속변인

종속변인으로는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

〈표 1〉 3개 대학도서관 비교

도서관 / 내용	A대학 도서관	B대학 도서관	C대학 도서관
교원수*	146명	136명	268명
학부학생수*	6,467명	4,577명	8,917명
학과(전공)수	31개	29개	47개

* 한국대학연감(1998-1999)에서 참조.

에 구입된 자료의 종류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 구입, 기증, 교환이 있으나 도서관 예산과 의지에 따라서 수집되는 방법은 구입이므로 이를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장서의 중복율은 동일한 자료가 어느 정도 구입되는지 조사하며, 비교 도서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밝히는데 사용된다.

3. 3 데이터수집

본 연구대상이 되는 대학도서관 3곳에 2000년도, 2001년도에 구입된 자료 목록을 요청하였다. 입수된 레코드는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의 정보(단, 한곳은 출판년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았음)를 포함하는 MS Excel 파일 형식으로 되어있었다. 각각의 레코드는 자모순으로 정렬한 후, 서로 비교되어 동일 자료의 수를 파악하여 비교표에 기록하였다. 동일자료로 인정되는 기준은 서명과 저자명, 그리고 출판사의 일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서명과 출판사가 동일하지만 저자명이 다른 경우는 입력과정의 오타로 여기고 동일한 자료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서명은 동일하지만, 출판사가 다른 레코드는 다른 자료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권 이상 동시에 구입한 복본은 한 권으로 처리하였다.

4. 데이터분석

4. 1 연도별 구입자료 수

3곳의 대학도서관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구입한 자료의 수가 조사되었는데, 〈표 2〉와 같다. A 대학도서관은 2000년도에 11,402권 2001년도에 1,660권, B 대학도서관은 2000년도에 1,221권 2001년도에 4,664권, 그리고 C 대학도서관은 2000년도에 9,165권과 2001년도에 10,271권을 구입하였다.

4. 2 자료구입 중복율 비교

(1) 연도별 중복율

중복율은 해당연도에 구입한 자료 중에서 비교 대상의 도서관에서 동시에 구입한 수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개 도서관에서 각각 1000권의 자료를 구입하였다면, 전체는 2000권이 되고 그 두 도서관이 동시에 구입한 자료의 수가 20권이었을 때, 중복율은 20/2000＝0.01로 1%가 된다. 자료의 중복율이 높다는 것은 두 도서관 사이에 공동으로 구입한 자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중복율이 낮다면 두 도서관이 자원을 공유할 때, 접근을 통해서 소장자료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 자료의 중복율은 2000년도, 2001

〈표 2〉 연도별 구입자료의 수

	A 대학도서관	B 대학도서관	C 대학도서관
2000년도	11,402권	1,221권	9,165권
2001년도	1,660권	4,664권	10,271권

년도, 그리고 2000년도와 2001년도를 합계한 후, 비교 대학도서관들의 중복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된 중복율은 모두가 4% 미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0.4%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두 도서관이 동시에 구입한 자료가 1000권을 구입할 때, 오직 4권만이 같은 자료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거의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도 구입자료의 중복율은, A 대학도서관과 B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두 대학도서관이 구입한 자료의 총수는 12,623권이었으며, 이중에서 중복으로 구입된 자료의 수는 50권이어서 중복율은 0.4%가 되었다. B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두 대학도서관이 구입한 자료의 총수는 20,567권이고 중복된 자료가 273권이어서 중복율은 1.33%가 되었다. 그리고, B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은 구입자료의 총수가 10,386권이며 중복된 자료의 수는 115권으로 중복율은 1.11%가 되었다. 그리고, A, B, C 대학도서관이 구입한 자료의 총수는 21,788권이 되며, 세 도서관 모두가 동일한 자료를 구입한 수는 10권으로 중복율은 0.05%가 되었다.

2001년도를 살펴보면, A 대학도서관과 B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두 대학도서관이 구입한 자료의 총수는 6,324권이며 그 중 중복된 자료의 수는 177권으로 중복율은 2.8%이다. A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11,931권이며 중복된 자료는 433권으로 중복율은 3.63%이다. 그리고, B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은 14,935권이며 중복된 자료는 580권으로 중복율은 3.88%이다. 이들 3개 대학도서관이 구입한 자료의 총수는 16,595권이 되며, 이중 중복된 자료의 수는 79권으로 중복율은 0.48%가 되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를 합하여 비교하면, A 대학도서관과 B 대학도서관이 2년 동안 구입한 자료의 총수는 18,947권이 되며, 이중 중복된 자료의 수는 602권이 되며 중복율은 3.18%가 되었다. 중복된 자료의 수가 급증된 이유는 두 대학도서관이 구입한 자료의 시기가 다르게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가' 도서를 A 대학도서관에서는 2000년도 구입하였지만, B 대학도서관에서는 2001년도에 구입하여, 연도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중복되어 구입되지 않았지만, 2개 년도를 합하여보면 중복되어 구입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복된 자료의 수가 증가되었다. A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구입자료의 총수가 32,498권이며, 중복자료의 수는 1,147권이며 중복율은 3.53%이다. B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25,321권이며, 중복된 자료는 862권으로 중복율은 3.4%이다. 그리고, A, B, C 대학도서관들이 2년 동안 구입한 자료의 총수는 38,383권이며 공통으로 중복된 자료는 167권이며 중복율은 0.44%이다.

(2) 비교 대학도서관간의 차이

A 대학도서관과 B 대학도서관은 교원의 수, 전공의 수에서는 거의 유사하며, 학부 학생의 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입자료 중복율을 보면, 2000년도에 0.4%, 2001년도에 2.8%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A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은 교원의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학부 학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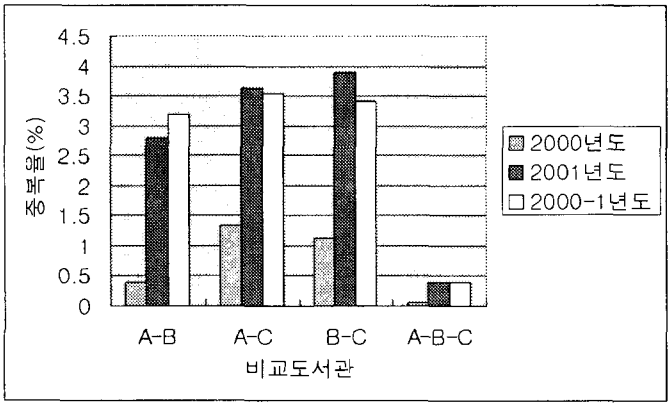
〈표 3〉 비교 대학도서관간 중복율

		A-B도서관	A-C도서관	B-C도서관	A-B-C도서관
2000년도	구입자료합계	12,623	20,567	10,386	21,788
	중복자료수(%)	50(0.4%)	273(1.33%)	115(1.11%)	10(0.05%)
2001년도	구입자료합계	6,324	11,931	14,935	16,595
	중복자료수(%)	177(2.8%)	433(3.63%)	580(3.88%)	79(0.48%)
2000-1년도	구입자료합계	18,947	32,498	25,321	38,383
	중복자료수(%)	602(3.18%)	1,147(3.53%)	862(3.4%)	167(0.44%)

수에서 A 대학이 C 대학의 70%, 그리고, 전공수에서는 A 대학이 C 대학의 65%를 차지하는데, 중복율은 2000년도에 1.33%, 2001년도에 3.63%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B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은 교원수와 학부 학생수에서 2배의 차이가 있으며 전공수에는 B 대학이 C 대학의 60%에 불과하였지만, A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의 중복율과 비슷한, 2000년도 1.11%와 2001년도 3.88%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A 대학도서관과 B 대학도서관 사이의 중복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도서관과 비교보다 적은 이유는 교원수, 학부학생수, 전공수에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전공 주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A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이 많고, 이공계열의 전공이 있지만, B 대학은 체육계열을 중심으로의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이 있다. 하지만, 교원수, 학부학생수, 전공수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A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 그리고 B 대학도서관과 C 대학도서관 사이의 중복율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C 대학의 경우, 교원수나 학부 학생의 수에서 A 대학과 B 대학보다 많고 개설되어 있는 전공이 유사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대학도서관간의 중복율이 A 대학도서관과 B 대학도서관의 중복율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표 4〉 2000년도 2001년도 중복율



(3) 정보네트워크와 중복율

데이터 분석을 통해보면, A 대학도서관과 B 대학도서관의 중복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두 대학도서관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원을 공유하면 거의 두 배의 장서증가율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굳이 협력수서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서정책을 수립하여 자료를 구입하여도 중복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원을 공유하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은 서로 유사한 전공이 별로 없는 두 대학에서 얼마나 상대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로 유사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A 대학과 C 대학, 그리고 B 대학과 C 대학은 서로 자원 공유가 효과적일 수 있다. C 대학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A 대학도서관이나 B 대학도서관에 비하여 한해 자료구입이 많기는 하지만 중복된 자료는 4% 미만이다. 이는 A 대학도서관이나 B 대학도서관과 자원을 공유하여도 서로 소장하고 있지 않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관의 자료만 대출된다는 부담감 없이 실질적인 장서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해에 구입된 자료의 중복율이 전체 장서 중복율과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본 연구 데이터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각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해마다 수집되는 자료에 의해서 누적된다. 그러므로, 일년동안 수집된 자료의 중복율에 비하여 2년동안 수집된 자료의 중복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면, 일년 단위로 조사된 중복율을 전체 장서의 중복율로 대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년동안에는 비록 다른 자료를 구입하였더라도, 다음해에 타 도서관이 전해에 구입한 자료를 구입한다면, 전체장서의 중복율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2년동안 누적된 중복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일년단위의 중복율이 전체 장서의 중복율과 유사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으로 2년간 누적된 구입자료의 중복율을 살펴본 결과 일년단위의 중복율과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표 4 참조). 이 결과로 일년간 자료구입 중복율로 전체 장서 중복율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들간에 어느 정도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는지 조사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학도서관간 한해에 구입하는 자료의 중복율은 0.4%에서 3.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학도서관과 규모가 작은 대학도서관간에도 구입자료의 중복율은 4% 미만으로 나타나 대규모의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타 도서관과 정보네트워크을 통하여 자원을 공유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학간에 교원수와 학부학생수, 전공수는 중복율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공분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구입자료에 대한 1년 단위의 중복율을 전체 장서 중복율로 대체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유사한 전공분야가 대학도서관 구입자료 중복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동일 전공의 자료를 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서로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면 도서관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며,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표로서 중복율이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당해연도에 구입된 자료의 중복율과 여러 해 누적된 구입 자료의 중복율과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해의 자료 중복율이 전체 장서의 중복율을 대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 이는 구입자료의 출판연도를 통하여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추후 연구과제는 대학도서관간의 정보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들 3개 대학도서관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대규모 대학도서관과 소규모 대학도서관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여도 상호간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2001.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윤희윤. 2001. 『장서관리론-점토판에서 사이버북까지』. 대구: 태일사.

한국대학신문 편집팀. 2000. 『한국대학연감: 1998-1999』. 서울: 한국대학신문사.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0. 『대학도서관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현황 조사 및 분석』. 대구: 동 도서관협의회.

Chapman, Liz. 안정아 역. 1998. 도서관의 협력적 장서개발 -자료의 공동구입을 통한 경제성 향상. 『국회도서관보』, 35(4): 75-82.

Pritchard, Sarah M. 1992. New directions for ARL statistics. ARL: A Bimonthly Newsletter of Research Library Issues and Actions 161: 1-3, Quoted in Eleanor Mitchell and Sheila A. Qalters. *Document Delivery Services: Issues and Answers,* 2-3. Medford: Learned Information, Inc., 1995.